

2019년 6월 22일,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노인회관, 류진옥 조사.

김춘화(여, 1933년생, 서귀포시 정방동)

- 서귀포시 남원면 태흥리 출생, 22세에 결혼 후 서귀포시 송산동에서 살다가, 45세에 정방동에 와서 현재까지 40여 년째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남선비가 작은부인의 간계에 빠져 여섯 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. 그런데 막내아들의 지혜로 다섯 형을 모두 살리고 계모를 죽여 복수하였다.

[제보자] 노일저대귀일이뜰이 아들 여섯 성제 잇인디 이제 첩, 죽은어멍으로 들어간디. 이제 그 아들 여섯 성젤 몬 잡아 먹젠, 막 아프덴 스몫 몬 죽여가는 체록 허다네.

이제 우장 쓰구 막 가면 앓아네 점지레 이제 점쟁이로 간 앓이난 이제 그 귀일제더 사위가 그 아덜 여섯 성제 난 아방이 이제 그 점지영 나 살려드렌 하도 허난 글로 점을 지레 가난.

아들 여섯 성젤 다 잡아 먹어야 벙이 좋으넨 허난, 이제 그거 아덜 여섯 성젤 그 아방이 이제 죽이젠 칼을 송당송당 굴았이나네.

“아버지, 그 무시거 헛젠 칼 갈았우과?”

“니네 어멍 아들 여섯 성제 애 내 먹어사 좋덴 허나네 칼 갈았저.”

경 허나네.

“아이고, 허거들랑 아버님, 수고헐 거 엇이 그 칼을 날 주멘 나가 가그네 형들 다섯 성젤 몬 죽영 애 내영 왕, 어멍 멕여나그네, 허나랑 아버지가 잡앙 줍서.”

허난, 경허렌 헤니 칼을 주난, 이제 여섯 성제가 이제 산드레 기가 멕히노난, 산드레 올라가 느려노나네, 이제 그 거시기 산돼지가 여섯 개가 잘잘잘잘 느려오 랐어.

게난 그 여섯 성제가 허나 샳건 심어 샳인디 허나네, 이젠 다섯, 산돼지 다섯 무릴 애 내단, 다슴어멍을 준 거라. 주난 죽은아들이 그추록 영리해전.

게난 이젠 영 문?망으로 먹엄냐 아이 먹엄냐 보멍, 별경허게 입으로 영영 허당, 초석 알르레 곱지고, 영영영 허당 초석 알르레 곱지곡 헨, 여섯 성젤 다 애

내 먹언 이젠 그땐 족은아들이 활딱 놀려들어네 이불 확 걷언 보난 아들 다섯,
그 돼지 다섯 개 애 내어온 거 오고생이 시난, 그땐 이년 헨, 그 년도 죽여네,
바당에 뿌리난 손톱은 대우살 뉘고. 똥고망은 물문줄이 뉘고. 이제 무시건 어떻
뉘진 현, 역산 막 할마니네 산 때 막 들어도, 그건 몬 잊어불지.

게난 각각이 찢어네 바닷물에 간 그 족은아들이 각각 찢영 바닷물에 간 들이
치나네, 똥?망은 물문줄이 영 허면 영 거치면 움지락허는 거허고, 손은 손콥은
그 대수알 그거 뉘고 이제, 허여네 허엿젠 현 역사가 우리 할마니네 앓으면 막
그런 남선비 말이영 하영 곱아도 늙으난 몬딱 잊어비언게.

게난 그 아들 여섯 성제 난 아방은 남선빈 생이라. 게난 남선비 옥은 깬에도
경 당헛젠 허난 아들 여섯 성제 난 아방은 남선비여. 그 말 못 곱아.

- 핵심어: 칼, 산돼지, 족은아들(작은아들), 노일저대귀일이똥(노일저대귀일이똥), 족은어멍
(계모), 여섯 성제(여섯 형제), 남선비, 애(간), 물문줄(말미잘), 다슴어멍(익붓어머
니), 아방(아버지)